



영화 제작부터 기획전까지 지역서 피어나는 문화 실험

목포 씨네로드 '시네마MM'·아트시네마 日 감독 기획전
광주여성가족재단, '더 브런치 영화제' 감독과 대화 등도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영화 공동체부터 감독과 직접 만나는 토크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 영화를 매개로 한 문화 프로그램이 잇따라 마련돼 지역 영화문화의 저변을 넓혀 주목된다.

수도권 중심의 영화 문화 환경 속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예술영화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온 것. 최근에는 영화를 매개로 지역 공동체와 시민의 문화적 경험을 확장하려는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영화가 하나의 문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목포 영화창작단체 씨네로드가 오는 11일 영화문화 공동체 프로그램인 '시네마MM-MM 큐레이션' 첫 모임을 갖는다.

3년차인 이 프로그램은 영화를 제작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격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목포 백년대로에 자리한 독립영화관 시네마

MM에 모여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를 함께 관람한 뒤 감상을 나누고, 영화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과 영화제 탐방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된다.

특히 관객이 직접 상영작을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관객 프로그래머 활동을 비롯해 GV 모더레이터, 상영회 기획, 목포국도1호선독립영화제 연계 프로그램 운영과 스태프 활동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는 관객을 단순 소비자 아닌 영화문화 생산의 주체로 성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영화를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영화를 매개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제공한다.

울초 목포극장에 새롭게 문을 연 목포아트시네마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일본 다큐멘터리 작가 오다 카오리의 작품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특별 기획전을 연다.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에서는 '아라가네', '세노테', '언더그라운드' 등이 이른바 '지하 3부작'이 상영된다.

오다 카오리는 인간과 자연, 기억과 시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독창적인 영상 언어로 탐구해 온 감독이다. 대표적인 '아라가네'는 보스니아 광산 노동자들의 삶을 담았으며, '세노테'는 멕시코 유카탄반도의 신비로운 동굴을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사유한다. '언더그라운드'는 전쟁과 기억, 인간 존재를 성찰하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기획전은 상업영화 중심의 극장 환경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세계 예술영화를 지역 관객들에게 소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목포아트시네마는 지역 영화단체 씨네로드가 운영하는 시네마MM 큐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단편 '혼자 있을 때' 감독으로 데뷔한 윤창민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아울러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오는 18일 광주시민

회관 2층 소공연장에서 시민 대상 영화 프로그램인 '더 브런치 영화제'를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채한영 감독의 단편영화 '차가운 숨'을 함께 관람하고 감독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화 상영 이후에는 안보영 PD의 진행으로 채 감독이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GV)가 이어져 작품에 담긴 메시지와 제작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차가운 숨'은 짧은 러닝타임 안에서 인간의 감정과 관계를 밀도 있게 담아낸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재단은 영화 감상과 대화를 보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참가자들에게 브런치도 함께 제공한다. 선착순 40명을 대상으로 무료 운영되며 시민들이 영화와 문화예술을 보다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AI·XR 품은 'ACC 창제작 프로젝트', 글로벌 경쟁력 입증

미국·캐나다·오스트리아 등
7~9월 주요 행사 초청·전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계획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육성한 창제작 프로젝트들이 세계적인 아트&테크 무대에 잇따라 진출하며 국제 경쟁력을 입증한다.

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에 따르면 'ACC 크리에이티브 레지던시' 창제작 프로젝트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미국과 캐나다,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세계 주요 아트&테크 행사에 초청돼 전시와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이같은 세계 진출은 단순한 해외 전시 참가를 넘어 ACC가 지난 10여 년 동안 구축해 온 창제작 생태계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세계 무대에 오르는 작품들은 지난해 ACC 크리에이티브 레지던시를 통해 개발된 프로젝트들로, 후속 제작과 고도화 과정을 거쳐 국제 관객들과 만나게 된다.

ACC 크리에이티브 레지던시는 국제공모를 통해 전 세계 예술가, 연구자, 엔지니어 등 다분야 창제작자를 선정해 인공지능(AI), 확장현실(XR), 키네틱 미디어, 오디오비주얼 등의 매체적 실험과 첨단 기술 기반의 실험적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ACC는 아트&테크 분야의 창제작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11년째 국내외 창·제작자들의 융복합 활동을 지원해왔다.

참여 작가들은 레지던시 기간 동안 ACC 창제작 스튜디오의 디지털·아날로그 제작 인프라를 활용해 연구와 개발, 프로토타입 제작, 테스트 과정을 거쳐 작품을 완성했다. 여기에 전문가 자문과 협업 프로그램이 더해지며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새로운 창작 모델을 구현했다.

먼저 오는 7월 미국 LA에서 열린 '시그라프 2026'에는 ACC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인 코조(kojo)의 '그라디'(Gradi)가 참가한다. 시그라프는 지난 1974년 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컴퓨터 그래픽, 인터랙티브 기술, 디지털 미디어 분야 국제 행사로, 첨단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선도하고 있다. '그라디'는 시그라프 아트 갤러리 부문에 선정돼 ACC 창·제작 성과를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공개한다.



ACC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 코조의 '그라디'

이러 캐나디 몬트리올에서는 ACC 프로젝트 '확산'(Diffusion)이 관객과 만난다. ACC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 아버(Arbor)가 제작한 이 작품은 캐나다의 대표적인 디지털 예술 창제작 기관인 사트와 협력해 동형 퍼포먼스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작품은 오는 8월 전자음악과 디지털 예술 분야의 국제 플랫폼인 뮤직 몬트리올에서 상영된다. 사트는 몰입형 동 극장 사토스피어를 기반으로 XR, 전시, 퍼포먼스, 텔레프레젰스 등 다양한 디지털 아트 프로젝트를 제작·지원하는 세계적 기관으로 꼽힌다.

오는 9월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트&테크 축제 가운데 하나인 오스트리아 린츠의 아스 일렉

트로니카에도 ACC 프로젝트가 참여한다. 아스 일렉트로니카는 예술과 기술, 사회를 연결하는 국제 플랫폼으로 매년 전 세계 예술가와 연구자, 문화기관, 대학,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ACC는 이번 협력 전시를 통해 창제작 성과를 국제 무대에 소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계획이다.

김상욱 전당장은 "'ACC 크리에이티브 레지던시'가 세계적인 아트&테크 무대에 연이어 진출하는 것은 지난 10여 년간 축적해 온 창제작 플랫폼 역할에 대한 성과"라면서 "앞으로 전 세계 창제작자들과 함께하는 실험적 아트&테크 플랫폼으로서 국제적 협력과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여수 섬 45곳 10년간 탐방·기록한 '시심'

우동식 시집 '나에게로 가는 길'...자연·삶·문화·역사 형상화

10여년 간 45곳의 섬을 발품 팔아 찾아다니며 느낀 단상들을 오롯하게 시적 언어로 담아낸 시집이 최근 출간됐다.

주인공은 여수에 머물며 시작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동식 시인이 그 주인공으로, 실제 여수 앞바다 유인섬 45개 섬을 10년에 걸쳐 직접 탐방하며 네번째 시집에 담아냈다. 그가 펴낸 시집은 '나에게로 가는 길'로 문학들 시선 70번째 권으로 나왔다.

'섬섬여수 별곡'을 지향하는 나은 이번 시집은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9.5~11.4)를 앞두고 여수 섬의 자연과 삶, 문화, 역사를 시적 언어로 담아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번 시집은 현지어와 구어적 표현을 적극 활용해 섬마을의 생생한 삶을 담아냈으며, 깃별과 이로 작업, 전통문화 등 여수 섬의 정체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여수 섬의 가치와 매력을 재조명하는 작품으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여수 섬을 이해하고 홍보하는 인문학적 길라잡이 역할로 기대된다.

특히 여수 섬의 풍광은 물론 섬 주민들의 언어를 활용해 그들의 삶을 생생하게 형상화했을 뿐만 아니라 사라져가는 섬 공동체의 기억과 문화를 인문학적으로 되살려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시인은 "워파매 소룡단 갯바람/영관 정허게 추운그/뿔봉산 시루봉도 깎짝 놀라뿌졌네"('소리도 역포 할매' 부분)라거나 '저 앞에 구름 매키로 떠 있는 섬이 운두도여/고려 장 피해 늪은 아버지 모시고 피신 가서 이룬 효자 섬이제'('운두도雲頭高' 부분), 혹은 '일생을 걸어/모든 길은/나에게로 통한다'('나에게로 가는 길-금오도 비렁길' 부분)라고 노래한다.

시인에게 섬 찾기는 단순한 방문이라기보다 삶의 길 찾기로 격상된다. 막혔다고 생각하면 터지고, 끝났다고 돌아서면 그 끝에 길이 보이며, 만큼 그 여정이 우리네 인생과 닮았기 때문이다. 시인에게 길은 자신의 삶 또는 다른 삶으로 들어가는 통로인 셈이다.



신병은 시인은 시 해설을 통해 "'나에게로 가는 길'은 섬의 자연과 사람, 문화와 역사를 시인의 시선으로 통찰한 국내 드문 '섬 다큐멘터리 시집'이라며 "결국 섬으로 가는 길은 곧 나 자신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태균 전문위원은 표지를 통해 "시인이 직접 발로 누비며 기록한 여수의 섬들이 시가 되고, 섬사람들의 일상이 노래가 됐다"면서 "사라져가는 섬의 삶과 문화를 보존하는 소중한 문학적 기록"이라고 밝혔다.

여수의 유인섬은 물론 백도와 장군도까지 아우르며 섬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번 시집은 '섬의 풍경'을 비롯해 '섬의 삶', '섬의 문화', '섬의 역사' 등 4부로 구성, 10년간의 섬을 살피기 위한 시인의 시작 사유와 감성이 투영된 70편이 실렸다.

우동식 시인은 경남 함양 출생으로 2009년 '정신과 표현' 및 2015년 '리토피아'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했고, 2023년 '동시 먹는 달팽이'로 동시부문 등단했다. 첫 시집 '바람평설'로 세종문화회관 우수도서로 선정됐으며, 전남 문화재단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겨울, 은행나무의 발목'을 펴내며 이어 '여수 동백의 노래', 동시집 '산남데이 우리 동네'를 발간한 바 있다. 송수권문학상남도시인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사)한국작가회의 여수지부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